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8년 9월 1일 경찰공무원 2차

2018. 09. 01.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중세 국어의 자료	중세 국어의 특징
나·라·해, 불·취기·픈	㉠ 받침을 조사나 어미에 연달아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는 표기를 활용하고 있다.
:요흔, ·푼·디	㉡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수·빙니·겨·날·로·뿌·메	㉢ 명사형 어미 '-음'이 사용되고 있다.
:내·히·이·러·바·락·래·가 늑·니	㉣ 주격 조사 '-히'가 사용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7. 다음 중 띄어쓰기가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최정상급으로 이루어진 시립교향악단이 곧 정기공연을 한다.
 ② 제2분과 회의가 끝났으니 이제 자리를 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③ 경찰 조사를 통해 진상을 들은 바 그것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④ 그 사람은 오직 졸업장을 따는데 목적이 있는 듯 전공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8. <보기>에서 제시된 “안은 문장”의 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겹문장이 만들어지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문장들이 서로 나란히 이어지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문장이 다른 문장을 안는 방식이다. 전자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문장을 이어진 문장, 후자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문장을 안은 문장이라고 한다.

- ① 그것은 영이가 입을 웃이다.
 ② 우리는 돈 없이 여행을 떠났다.
 ③ 결국 그 사람이 범인이었음이 밝혀졌다.
 ④ 많이 바쁘시겠지만 꼭 참석해 주십시오.

10. 다음 중 국어의 부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녀는 정말 많이 운다.”에서 ‘정말’은 동사를 꾸며준다.
 ② “과연 그는 훌륭한 예술가로구나.”에서 ‘과연’은 문장을 꾸며준다.

- ③ “영이는 아주 새 사람이 되었다.”에서 ‘아주’는 관형사를 꾸며준다.
 ④ “아이는 맨 흙투성이로 집에 들어왔다.”에서 ‘맨’은 명사를 꾸며준다.

※ [11~12]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물외(物外)에 조흔 일이 어부 생애(生涯) 아니려나
 빅 떠라 빅 떠라
 어옹(漁翁)을 울디 마라 그림마다 그릇더라
 ㉠지국총(至菊叢) 지국총(至菊叢) 어스와(於思臥)
 스시(四時) 흥(興)이 흥가지나 추강(秋江)이 음듬이라

(나) 간밤의 눈 갠 후(後)에 경물(景物)이 달랏고야
 ㉡이어라 이어라
 압희는 ㉢만경류리(萬頃琉璃) 뒤희는 ㉣천탑옥산(千疊玉山)
 지국총(至菊叢) 지국총(至菊叢) 어스와(於思臥)
 선계(仙界)ㄴ가 불계(佛界)ㄴ가 인간(人間)이 아니로다

11.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계절을 배경으로 각각 10수씩 읊은 40수의 연시조이다.
 ② “지국총(至菊叢) 지국총(至菊叢) 어스와(於思臥)”라는 여음이 전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③ 조선 후기의 시조 문학을 대표하는 맹사성의 작품이다.
 ④ (가)는 가을, (나)는 겨울을 각각 배경으로 한다.

12. 밑줄 친 단어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노젓는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이다.
 ② ㉡: ‘배를 매어라’는 의미의 여음구이다.
 ③ ㉢: ‘반반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 ‘수없이 겹쳐 있는 아름다운 산’을 의미한다.

13. 다음 중 문학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사상과 감정의 표현을 중시하며, 현실의 제약으로부터 탈피하여 꿈과 이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조이다.
 ② ‘반영론적 관점’은 문학과 사회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③ ‘패관문학’은 민간에서 수집한 이야기를 윤색하여 창작한, 흥미분위의 문학을 말한다.
 ④ ‘세대소설’은 특정한 시기의 풍속이나 사회의 한 단면이 변모하는 모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소설을 의미한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8년 9월 1일 경찰공무원 2차

2018. 09. 01.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 [14~15]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빠, 편히 사시오.”

하고,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계연의 저만치 가고 있는 향라 적삼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뻘꾸기 울음 속에, 성기는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雨水)도 (㉠)도 다 지나, (㉡) 무렵의 비가 질금거릴 즈음이었다. 주막 앞에 늘어진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 등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긋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

아들의 미음상을 차려 들고 들어온 옥화는 성기가 미음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자, 이렇게 물었다.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 보고 싶냐?”

“.....”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다.

14. 24절기 중 ㉠과 ㉡에 각각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은?

- ① ㉠ 청명 ㉡ 처서 ② ㉠ 입춘 ㉡ 곡우
- ③ ㉠ 곡우 ㉡ 경칩 ④ ㉠ 경칩 ㉡ 청명

15. 위의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온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가 담긴 작품이다.
- ② 한국전쟁 직후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불안과 고뇌를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 ③ 길에서 우연히 만난 두 인물이 함께 귀향하는 과정을 다룬 작품이다.
- ④ 부조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패배하는 현대인의 모습이 비극적으로 그려진 작품이다.

※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런데 현대의 위기와 관련하여 그들이 개체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먼저 율리히 벡은 과학 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현대의 위기가 개체화와는 별개로 진행된 현상이라고 본다. 벡은 핵무기와 원전 누출 사고, 환경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삶의 편의와 풍요를 위해 이를 방치함으로써 위험이 체계적이고도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규정한 바 있다. 현대의 위험은 과거와 달리 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파괴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이 벡의 관점이다. 그런데 벡은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다는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오히려 전 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벡은 그들이 과학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그 파급적 결과까지 인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성찰적 근대화’의 실천 주체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요구를 모아 정치적으로 표출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실 사회 분화와 개체화는 자본주의적 산업화 이래로 지속된 현상이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화를 계기로 개체화 현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되었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노동 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생산직과 사무직 등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이제는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 일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 가족의 해체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율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은 개체화의 이러한 가속화 추세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 한편 지그문트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현대를 ‘액체 시대’로 정의하였다. 현대인의 삶과 사회 전체가, 형체는 가변적이고 흐르는 방향은 유동적인 액체와 같아졌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액체 시대라는 개념을 통해 핵 확산이나 환경 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의 항시적 존재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벡과 달랐다. 바우만은 우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수의 특권 계급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빈부 격차에 따라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등 잉여 인간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가 더 치명적으로 본 것은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버렸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는 위험에 대한 공포가 내면화되면 사람들은 극복 의지도 잃고 공포로부터 도피하거나 소극적 자기 방어 행동에 몰두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만은 일상생활에서의 정치적 요구를 담은 실천 행위도 개체화의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대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라)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현상을 ‘개체화’라고 한다. 율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의 개체화 현상을 사회적 위험 문제와 연관시켜 진단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16. (가)~(라)를 글의 순서에 따라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 ① (나)-(라)-(다)-(가) ② (라)-(나)-(가)-(다)
- ③ (나)-(가)-(다)-(라) ④ (라)-(가)-(다)-(나)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8년 9월 1일 경찰공무원 2차

2018. 09. 01.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정답 및 해설

01 ② 국어생활-한글맞춤법

<보기>의 ‘ㄹ’ 받침을 가진 단어나 어간이 다른 단어나 접미사와 결합할 때, ‘ㄹ’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은 ‘ㄷ’으로 적는 규정이다.

②의 ‘여달다’는 ‘열(어간)+달다’의 구성으로, 합성어나 또는 접두사가 결합한 파생어에서 ‘ㄴ, ㄷ, ㅅ, ㅈ’ 앞에 있는 ‘ㄹ’이 탈락하는데 이를 소리대로 적는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보기>의 규정이 적용된 예가 아니다.

- ㉠ ‘ㄴ’앞: 부나비(불나비), 따님(말님), 소나무(솔나무)
- ㉡ ‘ㄷ’앞: 달달이(달달이), 마되(말되), 여달이(열달이), 여달다(열달다)
- ㉢ ‘ㅅ’앞: 부손(불손), 마소(말소), 부삼(불삼), 화살(활살)
- ㉣ ‘ㅈ’앞: 무자위(물자위), 싸전(쌀전), 우짚다(울짚다), 바느질(바늘질)

[오답 풀이]

- ① 풀+소=풀소: 여름에 생फल만 먹고 사는 소.
- ③ 잘+주름=잘주름: 옷 따위에 잡은 잔주름.
- ④ 설+부르다=설부르다: 솜씨가 설고 어설피다.

02 ④ 국어생활-어휘의 문맥적 의미

㉠의 ‘갈다’는 ‘목 안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목에 힘을 주다.’의 의미이다. ‘이미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다.’의 의미의 ‘갈다’는 용례의 ‘갈다’와 동음이의어로서, 다음과 같이 쓰인다.

예 컴퓨터의 부속품을 좋은 것으로 갈았다.

창을 열고 실내 공기를 갈았다.

03 ① 현대문법-서술어의 자릿수

① ㉠의 ‘물들었다’는 ‘주어(물이)+부사어(노랗게)’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오답 풀이]

- ② ㉡의 ‘읽었다’는 ‘주어(그는)+목적어(소설책)’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③ ㉢의 ‘되었다’는 ‘주어(사람은)+보어(사람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④ ㉣의 ‘여긴다’는 ‘주어(그녀는)+목적어(행운을)+부사어(당연하게)’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04 ② 현대문법-접미사의 의미 및 용례

② ㉡의 ‘맺히다’는 동사 ‘맺다’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어 피동사가 된 것이다. 그러나 ‘굽히다’는 동사 ‘굽다’의 어간 뒤에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히’가 붙어 사동사가 된 것이므로 ㉠의 용례에 해당한다.

② ㉡의 (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히’가 붙은 피동사로는 ‘막히다, 달히다, 뻗히다, 맺히다, 얹히다, 읽히다’ 등이 있다.

[오답 풀이]

- ① ㉠의 ‘젖히다’는 동사 ‘젖다’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히’가 붙어 사동사가 된 것이고, ‘읽혔다’도 동사 ‘읽다’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히’가 붙어 사동사가 된 것이다. 이외에 ‘묵히다, 굳히다, 굽히다, 앉히다’ 등이 있다.
- ③ ㉢의 ‘넓히다’는 형용사 ‘넓다’의 어간에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히’가 붙어 사동사가 된 것이다. ‘괴롭히다’도 형용사 ‘괴롭다’의 어간에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히’가

붙어 사동사가 된 것이다. 이외에 ‘볶히다, 낚히다, 밝히다’ 등이 있다.

④ ㉣의 ‘조용히’는 형용사 ‘조용하다’의 어근 ‘조용’ 뒤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히’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다. ‘나란히’도 형용사 ‘나란하다’의 어근 ‘나란’에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히’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다. 이외에 ‘무사히, 영원히’ 등도 있다.

05 ③ 국어생활-로마자 표기법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 한복남 Han Boknam (원칙)
Han Bok-nam (허용)
- 홍빛나 Hong Bitna (원칙)
Hong Bit-na(허용)

06 ④ 고전문법-중세 국어의 특징

체언 중에는 여러 가지 조사가 붙을 때, ‘ㅎ’이 개입되는 것이 있는데 이를 ‘ㅎ’ 받침 체언이라 한다. ‘널, 나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 ‘내·히’는 ‘널+이(주격 조사)’의 구성이다.

[참고] 주격 조사

종류	쓰인 조건	보기
이	받침으로 끝난 체언 밑	말씀+이→말씀이(말이)
ㅣ	ㅣ 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밑	부터+ㅣ→부테(부처가)
∅[zero]	ㅣ 모음으로 끝난 체언 밑	불취 기픈(뿌리가 깊은)

[오답 풀이]

① ㉠은 받침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는 그 받침을 조사나 어미의 초성으로 이어지는 ‘연철(連續)’에 대한 설명이다.

나랄(‘ㅎ’ 받침 체언)+애(조사)=나라해
깊(어간)+은(어미)=기픈

② 구개음화는 현재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ㅇ’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ㄷ, ㅌ’이 ‘ㅌ, ㅎ’이 되는 현상으로서, 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의 근대 국어에서 나타난다.

㉡의 ‘:도흔’의 기본형은 ‘돌다’로서, 현대어 ‘졸다’의 옛말이다. ‘돌다>졸다’, ‘도흔(돌+은)>졸은’으로 변하고, ‘파·디’의 기본형 ‘파다’는 ‘파다’의 옛말이다. ‘파디>파지’로 변하게 된다.

③ 중세국어의 명사형 어미는 ‘-음/-움’이 쓰였다. ㉢의 ‘뿌메’는 ‘쁘(어간)+움(명사형 어미)+에(부사격 조사)’의 구성이다.

07 ③ 국어생활-띄어쓰기

③의 ‘들은바’에서 ‘-은바’는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동사 어간 뒤에 붙어 뒤 절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그 사실이 있게 된 것과 관련된 상황을 미리 제시하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이므로 어간에 붙여 쓴다. 이때 연결어미 ‘-은바’는 앞 절의 상황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오답 풀이]

- ① 이루어√진→이루어진
‘이루다’와 ‘(-어)지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이루어지다’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므로, ‘이루어지다’와 같이 하나의 단어로 적는다.
- ② 제√2분과→ 제2분과
‘제(第)-’는 ‘그 숫자에 해당되는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므로 앞 말에 붙여 적는다.
- ④ 따는데→따는√데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8년 9월 1일 경찰공무원 2차

2018. 09. 01.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데'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에 띄어 쓴다.

08 ④ 현대문법-문장의 갈래

④의 문장에서 어미 '-지만'은 '-지마는'의 준말로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시인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거나 조건을 붙여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이다. 따라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입+을(관형사형 어미)→관형절

② 없이 → 부사절

부사파생접사 '-이'는 서술어 '다르다, 없다'에 '-이'가 결합하여 '형과 달리, 소리도 없이'가 부사절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한다.

③ 범인이었+음(명사형 어미) → 명사절

09 ② 국어생활-비문의 유형

②의 '-ㄹ게'는 어떤 행동에 대한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발음이 [-ㄹ게]로 난다. 그래서 '-ㄹ게'로 적기 쉽지만 '-ㄹ게'로 표기한다. 한글 맞춤법에서 'ㄹ'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으)ㄹ거나' '-(으)ㄹ걸' '-(으)ㄹ세' 등도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나는 그녀와 영이를 만났다.

대등접속조사 '와'가 쓰여,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 나는 그녀와 함께 영이를 만났다.

→ 내가 혼자서 '그녀', '영이'를 만났다.

③ 그는 웃으면서 찾아오는 학생들을 친절히 안내했다.

'웃으면서'의 주체가 불명확하다. '웃으면서'의 주체가 '그는'일 수도 있고, '학생들'일 수도 있다.

④ 잃어버리고→잊어버리고

문맥상 '어떤 일에 열중한 나머지 잠이나 끼니 따위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다'는 뜻의 '잊어버리다'가 적절하다.

'한번 알았던 것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거나 전혀 기억하여 내지 못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문맥에서는 '잊어버리다'를 쓰고, '가졌던 물건이 자신도 모르게 없어져 그것을 아주 갖지 아니하게 되다', '의식이나 감정 따위가 아주 사라지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문맥에서는 '잃어버리다'를 쓴다.

10 ① 현대문법-부사의 수식

부사는 수식되는 위치나 범위에 따라, 특정 문장 성분을 수식한다면 '성분 부사'로, 뒤에 오는 문장(혹은 절) 전체를 수식한다면 '문장 부사'로 구분한다.

①의 '정말'은 부사 '많이'를 꾸며주는 성분 부사이다.

[오답 풀이]

② "과연 그는 훌륭한 예술가구나."에서 '과연'은 문장을 꾸며준다. '과연'은 주로 문장의 앞쪽에 위치하면서 화자의 단정적인 심리적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부사이다.

③ '아주'는 관형사 '새'를 꾸며준다.

④ '맨'은 명사 '휴투성이'를 꾸며준다.

※[문11~12]출전: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1. 해제: 고산(孤山) 윤선도 지은 40수의 연시조이다. 작자가 65세 되던 해에 벼슬을 버리고 보길도(甫吉島)의 부용동(芙蓉洞)에 들어가 한적한 나날을 보내면서 지은 노래이다. 봄 노래(春詞)·여름 노래(夏詞)·가을 노래(秋詞)·겨울 노래(冬詞)로 나뉘어 각각 10수씩 모두 40수로 되었다. 고려 때부터 전하던 《어부가(漁父歌)》를 이현보(李賢輔)가 9장으로 고쳐 지었고, 다시 윤선도가 시조의 형식에 여음만 넣어 완성한 것이다.

2. 핵심 정리

1) 성격: 한정가(閑情歌)

2) 제재: 어부(漁父)의 생활

3) 주제: 강호의 한정(閑情). 철따라 펼쳐지는 자연의 경치와 어부(漁父) 생활의 흥취

3. 제시 지문 해설

(가) 가을철을 노래한 '추사(秋詞)'의 첫째 수로, 추강(秋江)에서의 물외한정(物外閑情)인 어부 생활(漁父生活)의 흥취를 노래했다.

(나)는 겨울을 노래한 동사(冬詞) 넷째 수로, 눈이 온 뒤 달라진 바다와 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경탄하고 있다. 특히 눈 덮인 강촌의 아름다움을 통해 이상향으로서의 자연을 예찬하고 있다.

11 ③ 고전문학-고시조의 종합적 특징

③ 제시 작품은 윤선도의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이다.

맹사성의 작품의 작품은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로 꼽히는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로서 춘하추동(春夏秋冬) 각 계절에 따라 한 수씩 총 4수이며, '江湖'로 시작하여 '亦君恩이샅다'로 끝을 맺는다.

[오답 풀이]

① 사계절을 배경으로 각각 10수씩 읊은 40수의 연시조이다.

② '지국총'은 닳을 감을 때나 노를 저을 때 나는 '삐그덕 삐그덕' 소리를 의성화한 것으로, 후렴으로 쓰였다. '어사와'는 배를 젓는 소리의 의성어이며, 한자로 쓴 것은 그 음을 차용하였을 뿐 아무 뜻이 없다.

④ (가) 가을철을 노래한 '추사(秋詞)'의 첫째 수로, 추강(秋江)에서의 물외한정(物外閑情)인 어부 생활(漁父生活)의 흥취를 노래했다.

(나)는 겨울을 노래한 동사(冬詞) 넷째 수로, 눈이 온 뒤 달라진 바다와 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경탄하고 있다. 특히 눈 덮인 강촌의 아름다움을 통해 이상향으로서의 자연을 예찬하고 있다.

12 ② 고전문학-시어의 의미

② ㉞은 '배를 저어라'라는 의미의 여음구이다.

[오답 풀이]

① ㉟ '지국총 지국총'은 닳을 감을 때나 노를 저을 때 나는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이다.

③ ㉞의 '만경琉璃(萬頃琉璃)'는 만 이량의 유리라는 뜻으로, 유리처럼 반반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비유한 것이다.

④ ㉞의 '천첩옥산(千疊玉山)'은 수없이 겹쳐 있는 아름다운 산을 의미한다.

13 ① 문학일반론-용어의 개념

①은 고전주의의 엄격한 형식주의, 몰개성적 성격에 반발하여 나타난 낭만주의 사조에 대한 설명이다. '자연주의'는 사실주의 보다 더 사회의 어둠과 타락한 현실 속에서 고통 받는 인간의 불행을 폭로하였다. 인간의 행동의 환경의 절대적 지배를 받는다는 환경 결정론과 다윈의 진화론에 큰 영향을 주었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8년 9월 1일 경찰공무원 2차

2018. 09. 01.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문14~15]출전: 김동리, '역마(驛馬)'

1. 해제: 1948년 <백민>에 발표된 이 작품은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떠돌아다녀야 하는 역마살이 든 아들과 이를 풀어 주려 노력하는 어머니를 제재로 하여 인간과 운명의 갈등 관계를 잘 형상화한 작품이다. 결국 어머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후 운명을 수용하는 것도 또 다른 구원의 한 방법임을 이야기하는 작가 의식 속에서 운명론적인 한국인의 의식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

2. 핵심 정리

- 1) 갈래: 단편 소설
- 2) 배경: 전라, 경상도의 접경 지역인 화개 장터
- 3) 제재: 역마살이 낀 인간의 운명
- 4) 주제:

- 운명에 순응함으로써 구원됨.
- 한국적 운명관(역마살)에의 순종과 그에 따른 인간성의 구현

3. 전체 줄거리 : 화개 장터에서 주막을 운영하는 옥화는 아들(성기)의 역마살을 없애기 위해 절(쌍계사) 생활을 시키고 장날에만 내려와 장터에서 책을 팔게 한다. 어느 날 체장수 영감이 잠시 말기고 간 계연을 성기와 결혼시켜 역마살을 막아 보려하지만 계연의 컷바퀴에 난 사마귀를 보고 그녀가 자신의 이복동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서로 맺어질 수 없는 운명임을 직감한 옥화는 둘의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 후 성기는 중병을 앓게 되고 병이 낫자 역마살을 따라 옛판을 꾸러 집을 떠난다.

14 ④ 현대소설-적절한 어휘(절기)

제시 문장을 보면 '우수(雨水), 버들가지, 살구, 복숭아, 진달래'라는 표현으로 보아 계절적 배경이 '봄'임을 알 수 있다. 봄의 절기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立春)은 양력 2월경, '우수(雨水)'는 양력 2월경, '경칩(驚蟄)'은 3월경, 청명(淸明)은 4월경, 봄비가 내려서 백국이 운택해진다는 곡우(穀雨)는 4월경이다. 문맥상 우수는 지나고, 비가 질금거릴 즈음이므로 ㉠은 경칩,

㉡은 '청명'이 적절하다.

① ㉢은 처서(處暑)는 양력 8월경으로 가을의 절기이다.

계절	달(음력)	날짜(양력)	절기(節氣)	해설
봄	정월 (正月)	2월 4일경	입춘(立春)	봄이 시작됨
		2월 18일경	우수(雨水)	봄 기운이 돌고 초목이 싹틈
	이월 (二月)	3월 5일경	경칩(驚蟄)	모든 벌레나 동물이 동면에서 깨어나 활동 시작
	삼월 (三月)	4월 5일경	청명(淸明)	날씨가 맑고 밝음
4월 20일경		곡우(穀雨)	봄비가 내려서 백국이 운택해짐	

15 ① 현대소설-작품의 종합적 감상.

작품의 제목 '역마'는 '역마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늘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만 하는 액운을 말한다. 이 작품에는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온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가 담겨 있다.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지 말고 운명에 순응함으로써 평온한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작가의 운명론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성기의 역마살을 거부해 보려고 했던 어머니 옥화의 의지나 노력조차도 운명의 힘 앞에서는 무너지고 마는 내용을 통해 인간의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운명의 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과학적이지 않은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듯한 모습과 토속적인 화개장터의 배경, 젊은 남녀의 순수한 사랑 등이 어울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작품이다.

※[문16~17]출전: '울리히 백과 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 사회론'

1.해제: 이 글은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개체화' 현상을 바라보는 두 학자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백과 바우만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개체화 현상 역시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백의 경우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 지구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할 가능성에 주목한 반면,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험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소극적 자기 방어에 몰두하게 되면서 현대에 닥친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2. 주제 현대의 개체화 현상을 바라보는 백과 바우만의 견해

16 ② 비문학-단락의 순서

이 글은 현대 사회의 개체화 현상에 대한 울리히 백과 지그문트 바우만의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라) 문단에서 개체화 현상과 사회적 위험 문제를 연결하여 진단하한 대표적인 학자 울리히 백과 지그문트 바우만을 소개하고, 이후 (나) 문단에서 '백과 바우만은 개체화의 이러한 가속화 추세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개체화에 대한 두 사람의 공통된 생각을 설명한다.

(가) 문단에서 '그런데 현대의 위기와 관련해서 그들이 개체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먼저 울리히 백'의 주장이 이어지고, (다) 문단에서 '한편 지그문트 바우만'의 주장이 이어진다.

17 ③ 비문학-내용파악하기

(나)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울리히 백과 지그문트 바우만은 개체화의 이러한 가속화 추세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③의 설명은 바르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나) 문단의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되었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② (나) 문단의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이제는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설명과 (라) 문단의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현상을 '개체화'라고 한다'는 설명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④ (나) 문단의 '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 일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 가족의 해체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에서 확인 할 수 있다.

18 ② 한문-한자성어

제시 글의 내용을 보면 '그건 손이 익고 마음에 통해서 저만 알고 그렇게 할 뿐이지 말로 형용해 남에게 그대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라는 말은 언어로 남에게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심오한 뜻은 마음으로 깨달는 수밖에 없다'는 ①의 이심전심(以心傳心)과 통한다. ③의 불립문자(不立文字)와 ④의 교외별전(敎外別傳)도 유사한 의미이다. 그러나 ②의 '요동지시(遼東之豕)'는 '요동 땅의 돼지'라는 뜻으로, 남이 보기에는 대단찮은 물건을 대단히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말한다. 참고로, 2014년 사회복지직 시험에서도 출제된 지문이다.

① 이심전심(以心傳心) : 以 써 이/心 마음 심/傳 전할 전/心 마음 심) 석가(釋迦)와 가섭이 마음으로 마음에 전한다는 뜻으로, ㉠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심오한 뜻은 마음으로 깨달는 수밖에 없다는 말. ㉡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의사(意思)가 전달됨. [유] 교외별전(敎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8년 9월 1일 경찰공무원 2차

2018. 09. 01.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外別傳), 불립문자(不立文字), 심심상인(心心相印), 영화미소(拈華微笑), 영화시중(拈華示衆)

② 요동지시(遼東之豕 : 遼 말 요/東 동녘 동/之 갈 지/豕 돼지 시) 요동 땅의 돼지. 남이 보기에는 대단찮은 물건을 대단히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말한다. 옛날 요동의 어떤 돼지가 머리가 흰 새끼를 낳자, 이를 신기하게 여긴 주인이 임금께 바치려고 하동(河東)으로 가고 갔다가 그곳 돼지는 모두 머리가 흰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돌아왔다는 데서 유래한다. [동] 요동시(遼東豕)

③ 불립문자(不立文字 : 不 아닐 불/立 설 립/文 글월 문/字 글자 자) 문자에 의하여 교(敎)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라는 뜻으로, 이심전심(以心傳心)과 함께 선종(禪宗)의 처지를 나타내는 표어. 오도(悟道)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므로, 따로 언어·문자를 세워 말하지 않는 데 참 뜻이 있다고 함.

④ 교외별전(敎外別傳 : 敎 가르칠 교/外 바깥 외/別 나눌 별/傳 전할 전) '경전(經典) 바깥의 특별한 전승(傳承)'이라는 뜻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뜻을 전함.

※[문18]출전: 이태준, '일본어(一分語)' - 이태준 수필집 「무서록(無序錄)」 중에서.

'무서록(無序錄)'은 말 그대로 서언이 없는 기록이라는 뜻이다. 말이나 문자가 가지는 본질적 한계를 절감한다는 내용의 수필이다. "십분십사 일본어"라는 문구에서 시작하여 이조 제기의 줄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작가 자신의 체험으로, 이어서 제나라 환공의 고사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은 주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1. 주제: 말과 문자의 본질적 한계

2. 구성

1) '십분십사 일본어'의 의미 : 품은 사랑은 가슴이 벅차건만 다 말 못하는 정경(情景), 마음 속에 아무리 많은 생각이 있어도 한마디 말로 표현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

2) 생각을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3) 이조 제기의 줄은 느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함

4) 제한공과 노목수의 고사 (※환공은 목수의 말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뿐이며, 중요한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는 사람은 목수)

5) 불립문자의 깨달음

19 ① 한문- 한자 어휘

㉠ 태탕(駘蕩: 駘 둔마(느리고 둔한 말, 편하다) 태/蕩 방탕할 탕) ㉡ 넓고 큼, ㉢ 봄날의 바람이나 날씨가 화창함.

㉣ 난만(爛漫: 爛 빛날(문드러질) 난/漫 흠어질 만) ㉤ 꽃이 활짝 많이 피어 화려했음. ㉥ 광채가 강하고 선명함.

㉦ 견개(狷介: 狷 성급할 견/介 낱(날) 개) 굳게 절개를 지키고 구차하게 타협하지 아니함.

㉧ 패기(霸氣: 霸 으뜸(두목) 패/氣 기운 기)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해내려는 굳센 기상이나 정신.

㉨ 신산(辛酸: 辛 매울 신/酸 실 산) ㉩ 맛이 맵고 심. ㉪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생스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참고] 2012년 서울시 7급에서도 같은 지문의 내용으로, 한자 어휘 문제가 출제되었다.

※[문19]출전: 김진섭, '매화찬(梅花讚)'

1. 해심 정리

1) 갈래 : 중수필

2) 성격 : 주관적, 사색적, 주장적

3) 문체 : 만연체

4) 제재 : 매화

5) 주제 : 매화 예찬

6) 출전 : 월간 '여성' 3월호(1939)

2. 제시 지문 읽기

매화(梅花)는 확실(確實)히 춘풍(春風)이 ㉠태탕(駘蕩)한 계절(季節)에 ㉡난만(爛漫)히 피는 농염(濃艷)한 백화(百花)와는 달라, 현세적(現世的)인, 향락적(享樂的)인 꽃이 아님은 물론이요, 이 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초고(超高)하고 ㉢견개(狷介)한 꽃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그 꽃이 청초(淸楚)하고 가향(佳香)이 넘칠 뿐 아니라, 기품(氣品)과 아취(雅趣)가 비할 곳 없는 것도 선구자적(先驅者的) 성격(性格)과 상통(相通)하거니와, 그 인내(忍耐)와 그 ㉣패기(霸氣)와 그 ㉤신산(辛酸)에서 결과(結果)된 매실(梅實)은 선구자(先驅者)로서의 고충(苦衷)을 흠뻑 상징(象徵)함이겠다.

3. 어휘 풀이

• 태탕(駘蕩)한: 봄의 경치가 화창한

• 난만(爛漫)히: 화려한 광채가 넘쳐 흐르는 모양

• 농염(濃艷)한: 화사하리만큼 아름다운

• 백화(百花): 여러 가지 꽃

• 초고(超高)하고 : 혼자 뛰어나게 높고. 아주 품위가 높아 천하지 않고

• 신산(辛酸): ㉠맛이 맵고 심.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생스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청초(淸楚)하고: 말쑥하며 깨끗하고

• 가향(佳香): 아름다운 향기

• 기품(氣品): 고상하게 보이는 품위

• 아취(雅趣): 고상하고 담박한 정취. 아담한 정취

• 상통(相通): 서로 통함

• 패기(霸氣): ㉠패자가 가질 수 있는 능름한 기상.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해낼 수 있는 자신감과 기백

20 ③ 현대문학-희극의 개념

레제드라마(Lesedrama)는 상연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읽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진 각본 형식의 문학 작품으로 독일어로 '부흐 드라마'(Buchdrama)라고도 한다. 연극의 한 종류로 반대말은 '뷰넨 드라마' (Bühnendrama)라고 한다.

[오답 풀이]

①은 비극적 진행과 희극적 결말이 결합된 '희비극'에 대한 설명이다. 주인공이 처음에는 부당하게 불행을 겪다가 상황이 반전되어 대단원 부분에서는 행복하게 끝맺는 극이다. 슬픔과 기쁨, 비장미와 골계미가 어우러져 특이한 조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대체로 통속극이 되기 쉽다.

②는 연극과 영화를 병합한 연쇄극(連鎖劇)으로서, 영화 발전의 한 단계이며, 키노 드라마(Kino Drama)라고도 부른다. 연극으로 표현할 수 없거나 힘든 야외 장면을 영상으로 만들어 연극에서 필요하게 되면 영사막을 내리고 상영해서 무대의 연극과 연결되도록 하는 형태이다.

④는 '멜로드라마(melodrama)'에 대한 설명으로서, 는 희랍어의 '노래(melo)'와 '극(drama)'이 결합된 말로서 반주(伴奏)가 따르는 간단한 극을 말한다. 그러나 지금은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묘사보다는 허구가 많은 파란만장한 줄거리를 드라마틱하게 연출하여 희비가 엇갈리는 장면 속에 전개되는 통속극을 가리킨다.